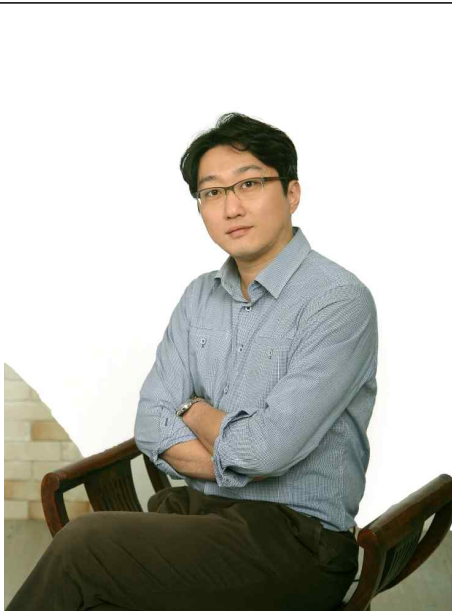


[패턴종합국어]

문법, 화법, 작문

Orbi Class

■ 국신T 신한중 선생님



[국신T 패턴국어] 패턴, 개념, 멘토링, Q&A

- ▶ 現 Orbi Class 수능국어 인강
- ▶ 現 광릉한샘기숙학원 재수종합반 국어 강사
- ▶ 現 목동아레테언어논술학원
- ▶ 前 노량진 이투스 수능 국어 단과 강사
- ▶ 前 외고, 자사고 특강 강사
- ▶ 前 Uway중앙교육 수능 언어영역 객원 분석위원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2강] 음운변동 출제패턴 및 기본개념(1)

[음운 변동 현상]

: 우리말을 발음할 때,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면서 음운이 서로 결합하면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음운 규칙]

: 음운 변동 중 규칙적인 현상을 의미

[음운 규칙의 종류]

-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규칙 : 교체, 동화, 축약, 탈락
-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규칙 : 사잇소리 현상

[음운 변동 총정리 지도 그리기]

1. 교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음절의 끝소리, 즉 받침이 되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가지만 올 수 있다는 규칙

[끝소리 규칙]

ㅁ	→	[입]
옷, 낫, 꽃, 바깥, 히읃		[온], [낫], [꽃], [바깥], [히읃]
밖, 부엌		[박], [부엌]

- ㅍ은 대표음 ()으로 발음.
- ㅅ, ㅆ, ㅈ, ㅊ, ㅌ, ㅎ은 대표음 ()으로 발음.
- ㄱ, ㅋ은 대표음 ()으로 발음.

[연음현상과 함께 이해]

- >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온다면?
예) 옷이, 옷을, 값이, 값을, 낫으로
- >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가 온다면?
예) 꽃 위, 옷 안, 옷 아래

[검받침의 끝소리 규칙]

1) ^ㅁ **ㅁ**은 첫째 자음만 남는다.

예) 값, 몫, 앉고, 외곶, 핥고

2) ^ㄴ **ㄴ**은 둘째 자음이 남는다.

예) 삶, 읊지

3) ^ㄹ **ㄹ**은 불규칙적

예) 읽고, 읽지 / 넓다, 밟다

^ㅁ은 대개의 경우, 앞의 ‘ㄹ’이 남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밟-’과 ‘넓’은 예외

<밟->

· 자음 앞 : [ㅁ]으로 발음. 예) 밟다, 밟소

<넓->

· 넓죽하다, 넓둥글다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

^ㄹ은 대개의 경우, 앞의 ‘ㄹ’이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ㄱ’은 ‘ㄱ’ 앞에서 ‘ㄱ’이 탈락하고 ‘ㄹ’이 남는 불규칙적 현상을 보임.

예) 맑게, 읽고, 묶고 등

(2) 된소리되기 (경음화)

: 두 개의 안울림소리(장애음)가 만나면 뒤의 안울림소리(장애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데 이를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국밥 → 「국빻」, 견고 → 「견꼬」, 없다 → 「업따」,
덧개 → 「덧깨」, 역도 → [역또], 젓소 → 전소 → [전쏘]

- 단, 어간말 자음이 'ㄴ, ㄹ'일 때 뒤 따르는 어미의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형사형 어미 뒤의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나기도 함.

(굶고 [굶:꼬], 신고 [신:꼬], 갈 데가 [갈 떼가] 등)

- 된소리되기는 사잇소리현상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2. 동화

(1) 자음동화

: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

- 비음화(ㅁ, ㄴ, ㅇ) :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ㄱ) 파열음이 뒤에 오는 비음에 동화되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ㅂ, ㄷ, ㄱ → [ㅁ, ㄴ, ㅇ] / ㅁ, ㄴ 앞

(ㄴ) 유음 'ㄹ'이 비음 'ㅁ, ㅇ'을 만나면 비음 'ㄴ'으로 변화

ㄹ → [ㄴ] / ㅁ, ㅇ 앞

(ㄷ) ㅂ, ㄷ, ㄱ + ㄹ → [ㅁ, ㄴ, ㅇ] + [ㄴ]

예) 독립, 남루, 섭리 등

- 유음화(ㄹ) :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의 영향으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

ㄴ 과 ㄹ 이 만났을 때 ㄴ 이 ㄹ 로 바뀌는 현상 ㄴ → [ㄹ] / ㄹ 의 앞이나 뒤	신라 → [실라], 천리 → [철리], 논리 → [놀리] (설측음화)
	칼날 → [칼랄], 찰나 → [찰라], 말눈 → [말룬], 실날같이 → 실랄가티 → [실랄가치]
	알는 → 알는 → [알룬], 꿀는 → 꿀는 → [꿀룬], 훑는 → 훑는 → [훑룬]

<예외>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 : 견난], 임진란[임 : 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단녁], 공권력[공권녁], 동원령[동 : 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 : 원논], 입원료[이뵤뇨], 구근류[구근뉴]

(2) 모음동화

: 모음과 모음이 만날 때 한 모음이 다른 모음을 닮는 현상 => 대부분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전설모음화 : 후행 'ㅣ'의 영향으로 선행 'ㅏ, ㅑ, ㅓ, ㅕ'가 'ㅞ, ㅟ, ㅛ, ㅜ'로 바뀌는 현상

예> 아비 →[애비], 잡히다 →자피다 →[재피다], 먹이다 →머기다 →[메기다]

→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전설모음화는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표준어로 인정하는 단어> 냄비,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풋내기, 소금쟁이, 담쟁이덩굴, 멧쟁이, 골목쟁이, 발목쟁이, (불을) 땡기다, 동댕이치다

- 'ㅣ'모음 순행 동화(이중 모음화) : 'ㅣ'의 뒤에 후설 모음 'ㅑ, ㅓ'가 오면 'ㅣ'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ㅛ, ㅜ'로 변하는 현상

예> 기어 →[기여], 먹이었다 →[머기연따], 미시오 →[미시요], 당기시오 →[당기시요]

<표준어로 인정하는 단어> 되어 →[되어/되여], 피어 →[피어/피여], 이오 →[이오/이요], 아니오 →[아니오/아니요]

(3) 모음조화

- 모음조화 :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려 발음되는 현상

- 양성모음 : ㅏ, ㅓ, ㅟ → 밝고, 가볍고 작은 느낌 (풍당풍당)
- 음성모음 : ㅑ, ㅕ, ㅛ → 거칠고, 무겁고, 큰 느낌 (풍덩풍덩)
- 중성모음 : ㅣ

(4) 구개음화

: 'ㄷ, ㅌ' 등의 치조음이 'ㅣ' 모음과 결합할 때, 'ㅈ, ㅊ' 등의 구개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굳이[구지],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붙이다[부치다]

예) 달히어 [다티어→다치어→다쳐], 굳히다[구티다→구치다]

(5) 두음법칙 (외래어는 예외)

- 'ㄹ'이 단어의 첫소리로 쓰이지 않고 'ㄴ'으로 바뀌는 현상

예) 로인→노인, 리발소→니발소→이발소 등

- 'ㄴ'이 단어의 첫소리로 쓰일때 'ㅣ', 반모음 ㅣ' 앞에서 'ㅇ'이 되는 현상

예) 소녀→여자, 백년→연세 등

[제2강 기본개념 점검 확인문제]

1.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암탉이 달걀을 낳았다. - [암탈기]
- ② 그는 계단을 밟고 천천히 내려갔다. - [밥:꼬]
- ③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 [꼬시]
- ④ 그분은 눈이 어두워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 [익찌]
- ⑤ 현충원을 참배하여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했다. - [넉쓸]

2. 다음 중 자음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는?

- ① 옷이
- ② 곤란하다
- ③ 먹는다
- ④ 달는다
- ⑤ 불났어

3. 다음 중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는?

- ① 물난리
- ② 백로
- ③ 섭리
- ④ 굳혀
- ⑤ 굳이

4.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미달이'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 도서관에 같이 공부하러 가자.
- ② 내 말을 곧이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 ③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배우니 정말 재미있다.
- ④ 이렇게 넓은 밭이 있으니 우리는 걱정이 없겠다.
- ⑤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올 것이니 물받이를 수리해 두어라.

[3강] 음운변동 출제패턴 및 기본개념 (2)

3. 탈락 / 축약

(1) 자음탈락

- 'ㄹ' 탈락 규칙 : 'ㄹ'이 뒤에 오는 잇몸소리 혹은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
 - **합성과 파생 과정에서의 'ㄹ'탈락** : 끝소리 'ㄹ'이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부나비(불-나비), 부삽(불-삽), 싸전(쌀-전), 여닫이(열-닫이)
 - **활용 과정에서 'ㄹ'의 탈락** : 'ㄹ'규칙 용언에서 어간의 끝소리 'ㄹ'이 'ㄴ, ㅂ, ㅅ, ㅇ' 앞에서 예외 없이 탈락
갈다 :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둥글다 : 둥그니, 둥근, 둥굽니다
- 'ㅎ'의 탈락 : 'ㅎ'을 끝소리로 가지고 있는 어간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 앞에서 'ㅎ'이 탈락
날은 [나은], 놓아 [노아], 쌓이다 [싸이다], 많아 [마:나], 얇은 [아는], 닳아 [다라]
- 'ㅅ' 탈락 : 원래의 형태소에서 'ㅅ'이 탈락하는 현상
긋다 → 그어 등
- **동음탈락** : 동음 중 앞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간난 → 가난, 목과 → 모과

(2) 모음탈락

구 분	성 격	예 시
* 동음탈락	이어진 동음 중 뒤의 모음 탈락	가아 → 가
'ㅏ'탈락	'하다'의 어간 '하-'의 'ㅏ'탈락	흔하지 → 흔치, 간편하게 → 간편케 연구하도록 → 연구토록
	(비교) '하다'의 어간 '하-' 탈락	거북하지 → 거북지,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
'ㅓ'탈락	어간 'ㄱ', 'ㅈ' 아래에서 탈락	깨어 → 깨
'ㅜ'탈락	어미 '-어' 앞에서 탈락	푸어 → 퍼
'ㅡ'탈락	어미 '-아/-어' 앞에서 탈락	쓰어 → 써

* 동음탈락 : -아서, -어서, -어라, -아라 등이 오는 경우에 주의해서 보도록 하자.

(3) 음절의 축약

: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것. 두 소리가 이어질 때 두 소리의 성질을 모두 가진 소리로 줄어드는 현상

- **자음 축약** : 'ㅂ, ㄷ, ㄱ, ㅈ' + 'ㅎ' → 'ㅃ, ㅌ, ㅋ, ㆁ'
ex) 좋고 → [조코], 옳지 → [올치], 잡히다 → [자피다], 닫히다 → [다티다] → [다치다]
- **모음 축약** : 두 모음이 만나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
ex) 오+아서 → 와서, 두+었다 → 뒀다, 되+어 → 돼, 가지+어 → [가져]

4. 첨가

(1) 사잇소리 현상

[전제조건 :]

[된소리되기와 구분하기 :]

- [조건1] 울림소리 + 안울림예사소리 (밤길, 길가)
- [조건2] 모음 + 안울림예사소리 (벧사공, 촛불)
- [조건3] 모음 + 울림소리(ㄹ, ㄴ) (이몸, 코날)
- [조건4] 모음 + 모음 (가윗일, 예삿일)
- [조건5] 뒷말이 ‘ㄹ’로 시작될 때 (논일, 물약, 아래이)

(2) [참고]사잇소리 현상의 특징

- 1) 예외가 많다.
예) 콩밥[콩밥], 고래기름[고래기름], 기와집, 밤송이, 은돈, 말방울
- 2) 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 김밥[김밥, 김빡], 물거품[물거품, 물꺼품]
- 3) 사잇소리 현상의 유무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예) 나무집 [나무집]-나무로 만든 집. [나무짚]-나무를 파는 집.
고기배 [고기배]-고기의 배. [고기빼]-고기를 잡는 배.
- 4)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자어가 많다.
예) 方法, 效果, 高架, 簡單, 教科書

<보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횡수(回數)

[제3강 기본개념 점검 확인문제]

1.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 네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에게는 당할 수 없다.

- ① 낳은[나은]
- ② 놓아[노아]
- ③ 놓고[노코]
- ④ 앓은[아는]
- ⑤ 싫어도[시러도]

2. 다음 음절 축약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 = ㄱ 내 눈에 떨지 않도록 조심히 움직여라.
- ② ㅊ + | = ㅊ 문법 개념은 너무 어려워서 다 외우기 어려웠다.
- ③ ㅊ + ㅊ = ㅊ 내가 봐서 괜찮은 신랑감인지 판단해주지.
- ④ ㅊ + ㅊ = ㅊ 창고에 놓인 도구를 나에게 줘.
- ⑤ | + ㅊ = ㅊ 문 밖을 나서니 푸른 산이 보였다.

3. 두 음운이 마주할 때, 그 중 한 음운이 완전히 탈락하는 형상이 아닌 것은?

- ① 보니
- ② 씨라
- ③ 소나무
- ④ 미닫이
- ⑤ 우는

4. 음운 변동과 그 예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히읗 → /히을/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② 국밥 → /국빱/ - 된소리되기
- ③ 손잡이 → /손좨이/ - 모음동화
- ④ 먹는다 → /멍는다/ - 유음화
- ⑤ 해돋이 → /해도지/ - 구개음화

[4강] 음운변동 실전연습 & 기출문제 분석

[음운변동 실전 연습문제]

1. <보기 1>에는 모두 ‘ㄴ’첨가가 일어나는 단어들 이 제시되어 있다. <보기 2>를 참고하여 <보기 1>의 단어 들에서 나타나 는 음운 변동을 언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직행열차[지갱널차], 훌이불[훈니불], 내복약[내 : 봉낙], 콩엿[콩년], 색연필[생년필]

<보기 2>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외의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 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비음화 :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 ㅁ, ㅇ’으로 바뀌는 현상
- 유음화 :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현상
- 거센소리되기 :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이 되는 현상
- ‘ㄴ’첨가 : 선행 요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후행 요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 기는 현상

- ① ‘직행열차 → [지갱널차]’의 변동 과정은 거센소리되기과 ‘ㄴ’첨가를 포함한다.
- ② ‘훌이불 → [훈니불]’의 변동 과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와 ‘ㄴ’첨가를 포함한다.
- ③ ‘내복약 → [내 : 봉낙]’의 변동 과정은 유음화와 ‘ㄴ’첨가를 포함한다.
- ④ ‘콩엿 → [콩년]’의 변동 과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첨가를 포함한다.
- ⑤ ‘색연필 → [생년필]’의 변동 과정은 비음화와 ‘ㄴ’첨가를 포함한다.

2. 다음을 참고할 때, 음운 변동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래의 음운 모습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바뀌어 나는 것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먹는’은 [멍는]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ㄱ’이 뒤에 오는 음운 ‘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 이다. 입력되는 음운을 a, 출력되는 음운을 b, 환경을 X와 Y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begin{array}{ccc} XaY & \rightarrow & XbY \\ \text{먹는} & & [\text{멍는}] \end{array}$$

이때 a는 Y의 영향을 받아 음운이 변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① ‘봄이 → [보미]’의 ‘ㅁ’
- ② ‘곡물 → [공물]’의 ‘ㄱ’
- ③ ‘권력 → [퀘력]’의 ‘ㄴ’
- ④ ‘같이 → [가치]’의 ‘ㅌ’
- ⑤ ‘잡고 → [잡꼬]’의 ‘ㄱ’

[음운변동 평가원 기출문제 분석]

11.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2016 수능A]

- ㉠ 옳지 → [올치], 좁히다 → [조피다]
- ㉡ 끊어 → [끄너], 쌓이다 → [싸이다]
- ㉢ 솟도 → [숯또], 웃고름 → [온꼬름]
- ㉣ 닳는 → [당는], 부엌문 → [부엌문]
- ㉤ 읽지 → [익찌], 훑거나 → [훑꺼나]

- ① ㉠, ㉡ :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 ㉢, ㉤ : 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 ㉣ : ‘깊다 → [깁따]’에서처럼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 : ‘겉모양 → [건모양]’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 ㉤ : ‘얕고 → [안꼬]’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11. <보기>에 따라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하여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2016 수능B]

<보기>

-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 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 한다. 이 경우, ‘ㅅ’은 [ㅆ]으로 발음한다. ... ㉠
- 겹받침 ‘ㄱ, ㄴ’, ‘ㄹ’,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ㅃ]으로 발음한다. ... ㉡
- 이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 [ㄱ, ㅃ]은 ‘ㄴ, ㄹ’ 앞에서 각각 [ㅇ, ㄹ]으로 발음한다. ... ㉢
- [ㄱ, ㅃ]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ㅃ, ㅅ, ㅈ’은 각각 [ㄱ, ㄷ, ㅃ, ㅅ, ㅈ]으로 발음한다. ... ㉣
- [ㄱ, ㅃ]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ㅋ, ㅍ]으로 발음한다. ... ㉤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여덟 + 이	㉠	[여더리]
②	몫 + 을	㉠	[목슬]
③	흙 + 만	㉡, ㉢	[흑만]
④	값 + 까지	㉡, ㉣	[갑까지]
⑤	닭 + 하고	㉡, ㉤	[다카고]

11.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은? [2016 9월 모평B]

<보 기>

- ㉠ 받침 ‘ㄷ, ㅌ’이 조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발이[바치]
- ㉡ 받침 ‘ㄷ, ㅌ(ㄹ)’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미달이[미다지]
- ㉢ 받침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예) 묻히다[무치다]

- ① ‘같이 걷다’의 ‘같이’는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가치]로 발음해야겠군.
- ② ‘술이나 냄비를 준비하다’의 ‘술이나’는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소치나]로 발음해야겠군.
- ③ ‘그것은 팔이다’의 ‘팔이다’는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파치다]로 발음해야겠군.
- ④ ‘자전거에 받히다’의 ‘받히다’는 ㉡에 따라 ‘티’를 [치]로 바꿔 [바치다]로 발음해야겠군.
- ⑤ ‘우표를 붙이다’의 ‘붙이다’는 ㉢에 따라 ‘티’를 [치]로 바꿔 [부치다]로 발음해야겠군.

11.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가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것은? [3점] [2016 9월 모평A]

<보 기>

국어에는 거센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밥하고[바파고] 떡이다.
- ㉡ 옷에 흙까지[흑까지] 묻히고 시내를 쏘다녔다.
- ㉢ 우리는 손을 잡고[잡꼬] 마냥 즐거워하였다.
- ㉣ 그는 고전 음악을 즐겨 들는다[든는다].
- ㉤ 칼날[칼랄]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① ㉠의 예 : 먹히다, 목걸이
- ② ㉡의 예 : 값싸다, 닭똥
- ③ ㉢의 예 : 굳세다, 숨이불
- ④ ㉣의 예 : 겁내다, 맨입
- ⑤ ㉤의 예 : 잡히다, 설날

11.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6월 모평A]

<보기>

선생님 : 어떤 음운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동일한 음운으로 바뀌거나, 조음 위치 또는 조음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럼 ㉠ ~ ㉤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것이 동화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 ㉠ 듣+고 → [듣꼬] ㉡ 놓+고 → [노코]
- ㉢ 훔+네 → [훔레] ㉣ 뺨+느라 → [뺨느라]
- ㉤ 넓+더라 → [널떠라]

학생 : _____ [가] _____

- ①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ㄱ’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ㄱ’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②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ㅎ’이 ‘ㄱ’의 영향을 받아 ‘ㅎ’과 거센소리라는 점이 같은 ‘ㅋ’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③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ㄴ’이 ‘ㅌ’의 영향을 받아 ‘ㅌ’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ㄹ’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④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ㅂ’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과 콧소리라는 점이 같은 ‘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⑤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ㅂ’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과 동일한 소리인 ‘ㄷ’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11.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2016 6월 모평B]

<보기>

<표준 발음법의 ‘된소리되기’ 중 일부>

- ㉠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 ① ‘(가슴에) 품을 적에’와 ‘(머느리로) 삼고’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② ‘(방이) 넓거든’과 ‘(두께가) 얇을지라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③ ‘(신을) 신겠네요’와 ‘(땅을) 밟지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④ ‘(남들이) 비웃을지언정’과 ‘(먼지를) 훔던’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⑤ ‘(물건을) 없지만’과 ‘(자리에) 앉을수록’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13. <보기>의 음운 현상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2006 4월 교육청]

<보 기>

자음 동화란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같은 소리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 또는 서로 동화되어 두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가) 받침 ‘ㄱ, ㄷ, ㅂ’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나)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붙임] 첫소리 ‘ㄴ’이 ‘ㄹ’, ‘ㄹ’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① (가)로 보아, ‘국민’이라는 단어는 [궁민]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② (가)를 바탕으로 하면, ‘손을 잡는 엄마’에서 ‘잡는’은 [잠는]으로 읽어야 한다.
- ③ ‘난로’를 [날로]로 발음하는 것은 (나)의 적용을 받은 결과이다.
- ④ (나)의 [붙임]을 고려하여, ‘감기를 앓는 동생’에서 ‘앓는’은 [알는]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⑤ ‘물난리’가 [물랄리]로 발음되는 것은 (나)의 경우가 두 번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13강] 화법의 출제패턴 및 핵심개념, 기출분석(1)

[핵심! 토의와 토론의 지문구성 패턴]

1. '토의' 지문에서 점검 포인트

문제 확인 → 문제 분석 → 대안탐색 → 대안 도출 → 대안 평가

- 사회자의 역할

- 토의 주제 및 순서 제시
-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
- 토의의 방향 제시
- 발언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
- 갈등과 의견 충돌 조정

2. '토론' 지문에서 점검 포인트

문제 확인 → 찬, 반 입론 및 논리적 근거 → 확인질문 → 찬, 반 반론 → 사회자 종합

-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잡아내자!

- 찬반 각각의 입장을 잘 정리해야 한다!

- 사회자의 역할

- 토론의 논제 소개
- 토론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
-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고 정리
- 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
- 토론 규칙을 잘 지키도록 유도 (감정적 충돌 억제)

[공통]

-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평가하면서 듣기

- 신뢰성 : 정보나 자료의 출처
- 타당성 : 근거가 타당한가?
- 공정성 : 주장이 치우침 없이 공정한가?

[공적인 말하기 vs 사적인 말하기]

- 시간의 비교 포인트
- 사용하는 언어의 비교 포인트
- 주제의 비교 포인트

[말하기 8가지 방식]

- 개념
- 인용
- 수치
- 예시
- 경험
- 비교, 대조
- 비유
- 질문 : 호기심 유발 vs 배경지식 점검

[기출로 점검] 2016학년도 6월 모평B

[1~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지금부터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찬성 1 :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은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팬덤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친구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스타를 응원하며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요즘 팬덤은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문화 운동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팬덤 활동을 하며 문화 실천의 주체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의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2 : 방금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딘가요?

찬성 1 : 국내 유명 팬덤인 햇살 팬클럽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반대 2 : [A]

찬성 1 : 저희는 자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반대 1 :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팬덤은 다른 팬덤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팬덤 활동을 하면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찬성 측에서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스타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자 일종의 중독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팬덤 참여자는 스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문화 실천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스타와 관련된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수동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최근 연하의 스타에게 열광하는 이모 팬덤, 삼촌 팬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도 저희가 팬덤 활동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1 : 중독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거죠?

반대 1 : 중독은 어떤 대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찬성 1 :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팬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반대 1 : 중독된 청소년도 많을 겁니다.

1. 토론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하는 발화이다.
- ②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발화이다.
- ③ 자신이 사용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발화이다.
- ④ 상대방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화이다.
- ⑤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요구하는 발화이다.

2. <보기>는 토론 전에 실시한 반대 측의 협의 내용의 일부이다. '찬성 1'의 발언과 <보기>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반대 1 : 반대 신문은 어떻게 하려고 해?

반대 2 : 음, 만일 찬성 측이 자료를 제시한다면 먼저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반대 1 : 어떤 식으로?

반대 2 : 자료의 출처가 불확실하다면 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야겠지. 또 자료가 편파적일 수 있다면 그 점을 부각하려고 해.

- ①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신뢰할 수 있나요?
- ② 그 자료는 저희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③ 그것은 최근에 조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는 안 맞지 않나요?
- ④ 그 자료는 팬덤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가요?
- ⑤ 팬덤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조사한 것이라면 그 자료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3. 다음은 배심원이 작성한 평가표의 일부이다.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계	평가 기준	토론자	평가 내용
입론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가?	찬성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의 관심사 공유, 인간관계의 확장은 팬덤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므로 타당함.....① • 문화 실천의 주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은 팬덤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므로 타당함.....②
		반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덤 활동의 배타성, 스타에 대한 맹목적 숭배는 팬덤 활동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므로 타당함.....③ • 이모 팬덤과 삼촌 팬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논제에 부합하는 부정적 사례이므로 타당함.....④
반대 신문	상대의 논리적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했는가?	찬성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이 사용한 '중독'의 의미를 팬덤 참여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 것은 적절함.....⑤

[핵심! 협상의 지문구성 패턴]

1. '협상' 지문에서 점검 포인트

: 토론(경쟁) + 토의(협력) = 협상

논제 → 공통 인정 부분 및 공통의 목표 → 각각의 목표 → 수용, 거부, 양보 → 절충

- 공통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출제 포인트
- 공통의 목표는 확인해야 한다.
- 각각의 주장(목표)를 명확히 한다.
- 각각의 제안을 수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도 점검한다.
- 누가 양보를 하고,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하는지 점검한다.
- 절충안의 수용 여부를 점검한다.

[기출로 점검] 2016학년도 9월 모평B

[3~5] 다음은 두 마을 간의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군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축제를 기획하면서 개최 장소를 A 마을과 B 마을 중에서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두 마을이 공동 개최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A 마을의 대표 A와 B 마을의 대표 B가 후속 협상을 하게 되었다.

A :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협상에서 다루지 못한 축제 공식 명칭에 대하여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B : 좋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A : 그러면 저희의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공식 명칭은 두 마을의 이름을 병기하되 저희 마을 이름을 먼저 표기했으면 합니다.

B : 글썄요. 저희도 저희 마을 이름이 앞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최지로 저희가 유력했던 상황에서 사실상 저희의 양보로 공동 개최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명칭과 관련해서는 저희의 의견을 수용해 주십시오.

A : 공동 개최와 관련해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B 마을도 공동 개최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축제 명칭은 각자의 축제 유치 의도를 고려하되 세부 조건을 조율해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B : 무슨 뜻인지요?

A :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B 마을은 축제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B : 그렇습니다.

A : 그런데 이미 유명한 B 마을과는 달리 저희는 저희 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그러니 축제 명칭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B 마을에 유리하도록 협상의 세부 조건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B : 글썄요. 축제 명칭에서 앞쪽에 표기되는 것은 그 의미가 큼니다. 저희 마을의 인지도가 이미 높다고 하더라도…….

A : 명칭에서 저희 마을 이름을 앞세우는 대신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B :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경제적 이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째, 명칭보다는 홍보 효과가 적지만 저희 마을 특산품을 축제 캐릭터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동 개최를 하게 되면 행사들을 서로 나누어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전체 행사 중 60%를 가져가겠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축제 공식 명칭과 관련하여 합의할 수 없습니다.

A : B 마을 특산품을 캐릭터로 만들면서 행사를 60%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배분 비율은 공동 개최에 걸맞게 50%를 원칙으로 합시다.

B : 그 제안은 저희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도 공동 개최에 대한 반대가 많거든요. 차라리 저희 마을이 유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단독 개최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A : 지난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같은 ○○군 마을끼리 온당치 않습니다. 단독 개최를 하더라도 저희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사 배분 비율은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B 마을이 원하는 다른 조건을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요?

B : 좋습니다. 이렇게 하죠. 행사 배분은 동일하게 50%씩 하고, 행사 선택은 하나씩 교대로 하되, 저희 마을부터 선택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수익성이 높은 행사를 저희 마을에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A : 음. 저희 마을 이름을 먼저 표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정도 조건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합시다.

4. 위 협상에 나타난 A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제 타결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 ② 연쇄적인 질문을 통해 갈등 상황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제안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⑤ 가정적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내세운 근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의견이 정당함을 피력하고 있다.

5. 위 협상에서 A와 B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와 B 모두 상대방의 양보로 축제의 공동 개최가 가능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 ② A는 축제 명칭을, B는 행사 배분 비율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양보했기 때문이다.
- ③ A는 행사 선택의 순서에서, B는 축제 캐릭터와 관련해서 최초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양보했기 때문이다.
- ④ A 마을의 인지도 향상과 B 마을의 경제적 이득 증대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 ⑤ A가 바라는 효과적인 축제 홍보와 B가 바라는 마을의 화합 증진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핵심! 인터뷰, 대담의 지문구성 패턴]

1. '인터뷰' 지문에서 점검 포인트

인터뷰의 목적(주제) → 질문내용 점검 및 말하기 방식 → 답변의 적절성 및 말하기 방식

[기출로 점검] 2016학년도 수능A,B

[1~2]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진행자** : 오늘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려고 문화 해설사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사 : 네. 안녕하십니까?

[B][**진행자** : 남한산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해설사 : 맞습니다. 험준한 자연 지형에 적합한 축성술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C][**진행자** : 자연에 축성 기술을 접목한 조상들의 지혜네요.]

해설사 : 그렇습니다. 『택리지』에는 남한산성이 그러한 이유로 큰 전란에도 함락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럼 오늘 대담의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해설사 : 남한산성의 가치로는 먼저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 주는 표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의 표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D][**해설사** : 그것은 하나의 성에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한산성은 신라 시대에 처음 쌓은 주장성을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증축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 보니까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나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다르던데 방금 말씀하신 시대별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해설사 : 맞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 이전의 성벽은 옥수수 알 모양으로 다듬은 돌로 쌓았고 조선 영조 때의 성벽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돌을 이어 붙이듯이 쌓았습니다. 이처럼 남한산성에서는 시대별로 다른 축성술을 한눈에 볼 수 있죠.

[E][**진행자** : 청취자 여러분도 남한산성에 가시면 성벽의 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네요. 그럼 시대별 축성술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1. [A] ~ [E]에 나타난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 진행자는 대담의 취지를 밝히며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② [B] : 해설사는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진행자의 배경지식을 물은 후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C] : 해설사는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여 진행자 말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다.
- ④ [D] :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⑤ [E] : 진행자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한 후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다.

[핵심! 발표, 연설의 지문구성 패턴]

3. '발표/연설' 지문에서 점검 포인트

[발표전략] → 소개, 발표주제(주제 선정 이유) → 단락별 내용정리, 말하기 방식 정리

- 발표 전략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 여부 점검
- 발표 주제 선정 이유 점검
- 단락별 발표내용 및 말하기 방식 점검(신뢰도 등)
- 요약 등 발표 마무리 방법 점검

[기출로 점검] 2016학년도 수능B

[연설 의뢰서]

저는 20××년 세계 □□ 사이클 대회 A시 유치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 선수께 개최지 결선 투표를 위한 지지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투표단은 대부분 사이클에 애정을 지닌 선수 출신들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개최지가 대회 취지에 잘 부합하는지를 중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선수 ○○○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니 무척 설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 사이클 대회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개최된 마흔두 번의 대회 중 사이클 강국인 유럽과 북미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적은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우리 A시는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의 도시이고 경쟁 도시는 유럽의 도시입니다. 흔히 사이클 비인기 지역의 도시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대회를 통해 사이클에 대한 A시의 시민들, 나아가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할 수 있으므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최지로서 좋은 여건을 갖췄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이클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 우리는 90퍼센트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정부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이클 전용 경기장에 비해 도로 경기장이 노후화됐다는 우려도 있지만, 선수로 출전해 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A시의 도로 경기장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대회도 충분히 잘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이클 회원국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사이클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세계 사이클 협회와의 약속을 지켜 왔습니다. 이전 대회의 유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세계 우호 증진에 힘쓰겠다는 당시의 공약대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이 없는 해외 도시들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개최지로 확정되면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회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이클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 꿈은 A시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참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A시 모든 시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연설 의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 중 연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대회 유치를 위해 청중을 설득해야 하므로 A시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겠어.
- ② 청중이 대회의 취지를 중시하므로 A시가 대회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어.
- ③ 청중이 사이클에 애정이 있을 것이므로 청중과의 공통점을 내세워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어.
- ④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어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A시 도로 경기장에 대해 설명할 때 선수로서의 경험을 내세워야겠어.
- ⑤ 청중이 전문 지식이 있으므로 A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의 내부 구조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야겠어.

[기출로 점검] 2016학년도 9월 모평A

(가)

학생 1 : 이번에 자유 주제로 학급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과제 있잖아. 우리 모둠은 아직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 정하지 못해서 고민이야. 좋은 생각 없니?

학생 2 : 최근 세계 로봇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로봇 ‘휴보’가 여러 방송 매체에서 보도되었잖아. 로봇에 대해 발표해 보는 게 좋겠어.

학생 1 : 그거 좋다. 그런데 로봇에 대한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른 내용을 좀 좁히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을 다뤄야 친구들이 흥미롭게 들을까?

학생 2 : 이걸 어때? 로봇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로봇의 발전과 관련하여 발표해 보는 거야.

학생 1 : 괜찮다. 이번 발표는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

(나)

[A][여러분, 앞의 화면을 잠시 봐 주세요. (로봇 영상을 보여 주며) 여기 등장하는 로봇은 올해 세계 로봇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로봇 ‘휴보’입니다. 두 발로 걷고 층계를 오르내리는 것이 사람과 비슷한데 참 신기하죠? 이 시간에는 이런 로봇의 발전과 인간의 삶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B][먼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로봇이라 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보도나 영화에서 봤던 여러 형태의 로봇이 생각날 것입니다.]

[C][자, 여기 사진을 봐 주십시오. (사진을 보여 주며) 이 당시의 로봇은 사람을 닮은 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팔 모양을 한 로봇이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휴보’처럼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어 두 발로 걷는 로봇이나 인간의 감정을 읽는 로봇까지 등장하였습니다.]

[D][그렇다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들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을까요? 초창기 로봇들은 운반이나 부품 조립과 같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되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 줌으로써 인간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화가 가능한 로봇이 등장하여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친구의 역할까지 해 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E][향후에 기술 발전에 따른 로봇의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보다 많은 시간적 여유와 삶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상용화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로봇 시장 규모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에 국내 로봇 산업 실태를 조사한 △△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로봇 시장 규모

는 2013년 2조 2,210억 원에서 2018년 7조 원으로 성장해 약 3.2배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등 로봇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로봇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발생하는 문제일 뿐, 인간이 로봇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로봇의 발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가)에서 ‘학생 2’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의도를 질문을 통해 확인하며 말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말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며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발언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4. [A] ~ [E]에 활용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로봇과 관련된 최근 사례를 제시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② [B] :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로봇이란 말이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다.
- ③ [C] : 청중들이 발표 대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매체를 활용하여 로봇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 ④ [D] : 로봇의 형태가 변화해 온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예를 들고 있다.
- ⑤ [E] : 국내 로봇 시장 규모의 증대에 관한 보고서를 근거로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